

양 · 계 · 메 · 모

월 양 계

10월호

- ◎ 전국양계인대회가 7년만에 충북 괴산소재 화양계곡 화양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다. 최근 FTA, 고병원성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업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양계인대회에 많은 양계인들이 참여하여 양계인들의 역량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 ◎ 최근 중국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되는 등 HPAI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부도 11월 시 특별방역기간을 앞두고 10월을 농가 홍보기간으로 선정, 시방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회에서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10월부터 시 예방대책본부를 마련하고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HPAI가 농장에 침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계인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 안된다.
- ◎ 계란 자조금 사업이 한창이다. 이미 9월부터 라디오를 통해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가 하면, 박람회 등에서 시식행사 등을 통해 계란소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다. 가까운 일본은 자조금제도는 없지만 생산자들이 모은 돈으로 미국의 저명한 박사를 초청해 지난 2005년부터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사, 영양사를 중심으로 주지시키고 있다. 일본은 1인당 330개의 계란을 섭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무자조금 사업이 정착되어 계란소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 ◎ 토종닭 사육이 증가하면서 토종닭 업계에서도 지난달 수십만수의 닭을 매몰하는 등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최근 토종닭 산업에 대한 심포지움이 개최되는 등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도 토종닭과 재래닭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토종닭과 재래닭에 대한 개념정립은 물론 철저한 종계등록을 통해 불법 종계를 척결하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수 국내재래닭에 대한 연구와 보존 사업도 국가에서 앞장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